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 '스:벅차' 출동...스타벅스, 강화 해병대원 응원

등록 2026.05.03 10:59:38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방부와의 협약 후 첫 번째 '히어로 프로그램'으로 강화도 해병대 군장병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9일 강화도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1000잔과 푸드 1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히어로 프로그램'에는 스타벅스의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인 '스:벅차'가 출동해 스타벅스 커피를 즉석에서 제조했다.

'스:벅차'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약 6개월간 기획·제작해 도입한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과 재난·재해 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벅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을 포함해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히어로'를 직접 찾아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커피 및 푸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히어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더 많은 히어로들을 직접 만나 응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